

## 建築의 本質과 設計業

### Essence of Architecture & Architect as Vocation

“건축설계의 본질은 창작이고, 건축설계 행위를 업으로 하는 건축사사무소의 생명은 작품이다.” 라고 배워왔고 지금까지 건축을 하는 좌우명으로 삼아왔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인·허가 업무의 절차가 설계의 프로세스가 되어버린 듯한 우리의 뼈아픈 상황을 되돌아보면 건축설계의 본질을 논하고 건축사사무소의 존재목적인 작품을 추구하겠다는 것은 일견 사치일 수도 있다.

건축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놓고 분분한 의견을 펼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다가올 미래에는 건축의 실행이 건축사들에 의해서만 구체화 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다. 이는 점점 더 치열하고 변화무쌍한 경쟁의 양태로 바뀌어가는 글로벌마케팅 시대를 규정짓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조종되는 발주자(건축주)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라고 생각된다. 더군다나 이런 부류의 건축주(클라이언트)들은 건축사들에게 소위 ‘통제권’ 을 양도하는데 조차도 전혀 무관심하다. 이미 이러한 현상은 주지하다시피 국경을 초월한지 오래다.

선배 건축사들이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마스터로서 누렸던 황금시대는 이미 물건너 간지 오래다. 더군다나 영악한 건축주들은 건축사의 창작의 질과 설계 가격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주도적으로 가지려고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설계가격은 상대적으로 한정시켜 놓고, 설계결과에 대한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더욱 요구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최근에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우리전체의 사활이 걸려있는 ‘대형건설사 설계겸업요구’ 의 논쟁도 저들의 눈에는 하나의 실험일 뿐이며 우리끼리 밥그릇 싸움질이나 하는 것처럼 저급하게 보일지 모른다. 이런 실험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의 경력과 능력이 있는 엘리트 건축사들이 자칫 도태될 것이란 점이다. 지금은 자금력과 제공권의 우위에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우리의 고유 영역인 설계시장을 잠식하기만 하면 천하통일이 되어 저들 나름대로 승승장구 할 것 같은 착각이지만 결국은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지금도 국내 저명한 분의 저서 ‘건축시공학’ 한권에는 분명히 씌여져 있는 글귀가 있다. 건축행위를 음악에 비유하여 건축설계자는 ‘작곡가’ 이고, 시공자는 ‘연주자’ 라고 말이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변화여서 인지는 몰라도 연주자가 작곡도 하고 결국엔 총지휘자, 즉 마스터를 하겠다는 것이다. 저들이 꽤심하다고만 할 수 없다. 환경이 변했고 세상이 바뀐 것이다.

설계업을 통한 통제권과 생존권을 잃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으리라 본다. 오히려 그러한 변화에 살아남는 지혜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져야할 것이다.

우리들로서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시공사의 ‘업역침범’ 이라고까지 하며 절대사수, 결사항쟁의 날을 세우고 있는 ‘설계

column

그렇다면 향후 한국건축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주체는 과연 누구이겠는가?  
 그 주체는 한마디로 없다고 본다. 있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특정 집단이 되어서도 안된다.  
 대형은 대형대로, 아틀리에에는 아틀리에대로,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대응방안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동일한 처방을 내릴 수는 없다.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얼마나 능동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흥망이 달려있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언제나 대 국민, 대 국가의 이익을  
 우리의 그것보다 우선시되고 존중될 때만이 지속 가능할 것이다.

겸업문제' 도 궁극적으로는 그 선택은 쌍방(건축사·건설사)의 어느쪽이 국민의 사회적 신뢰를 얻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이는 우리들의 이해관계만을 주장하고 싸우기 이전에 건축사를 포함한 건축인들의 존재 목적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건축사, 건설사) 얼마나 국민의 생명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우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라도 달라져야 한다. 건축환경의 변화와 쏟아지는 갖가지 관련 제도에 긴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인간이 만든 제도 중, 꽃 중에 꽃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제도도 제정 이후 오늘날까지 수천년 동안 역사 이래 얼마나 많은 변화를 해 왔는가를 알아야 한다. 나를 포함한 우리들만이 주장하는 외침이 반드시 옳고 그 반대자는 틀리다는 주장도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 틱낫한 스님의 말씀처럼 “내가 옳고 네가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네가 단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겠다. 이 세상에 진리는 있어도 절대적인 것은 존재치 않는다는 것이다. 근래 논쟁이 되고 있는 ‘시공사의 설계겸업 요구’도 개인적 기억에는 지금부터 십수년전 그때에도 ‘종합건설업 면허제도’ 도입여부로 적지 않은 소란이 있었다.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미봉책으로 대충 덮어놓고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오늘날까지 그냥 흘러 왔었던 것이다. 이제 건설관련 국내시장과 국제시장도 엄청 변화하였지만 국민의식도 불과 십년 사이 너무 변화였다. 그 변화의 대물결 속에 IMF라는 큰 혼란도 있었지만 우리들은 그 변화에 대한 대응을 아쉽게도 제대로 못하였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믿기 싫어도 이제 눈앞의 현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거기에서 해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땅에 넘어진 아이가 그 땅을 원망할 수만 없지 않는가, 왜냐하면 결국 그 땅을 짚고 일어설 수밖에 없듯이 상황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그 이상의 자구책들을 찾는대서 시작될 것이다. 이제는 사회 수준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건축문화의 올바른 정착과 향상을 위해 건축주, 건축사, 시공자 간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공동체적인 건축의 사회적 기능을 정상화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향후 한국건축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주체는 과연 누구이겠는가?

그 주체는 한마디로 없다고 본다. 있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특정 집단이 되어서도 안된다.

대형은 대형대로, 아틀리에에는 아틀리에대로,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대응방안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동일한 처방을 내릴 수는 없다.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얼마나 능동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흥망이 달려있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언제나 대 국민, 대 국가의 이익을 우리의 그것보다 우선시되고 존중될 때만이 지속 가능할 것이다. ▣